

결 의 안

경마장 장외발매소 광천터미널 유치에 대한 서구민의 입장

한국마사회에서는 광주시에 경마장 장외발매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경마장 발매소 후보지 접수를 받은 후, 금호가 신청한 광천동 버스 종합터미널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시 또한 내년 10월 문을 열 예정으로 추진되는 경마장 장외발매소 유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서구민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 1) **광천동 버스종합터미널 내에 사행성 및 교통대란의 문제가 있는 경마장 장외발매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

경마장 장외발매소는 사행성 오락시설이며, 교통대란을 일으킬 수 있는 광천터미널은 공익을 목적으로 터미널 지구 지정을 받아 개인 토지를 강제 수용하여 설치한 곳이다. 대중교통시설인 터미널을 이익성이 없다는 명분하에 용도를 변경하여 사행성 위락시설인 마사회의 경마장 장외발매소를 설치한다는 구상 자체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 2) **광주광역시와 서구청에서의 터미널 시설용도 변경에 서구민과 구의회에서는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다.**

금호그룹의 터미널 2층 2,300여 평을 관람시설로 용도를 바꿔 한국마사회에 빌려주겠다고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용도변경의 승인은 현재 규제조항이 완화되어 서구청장·광주광역시장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다.

아직 용도변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도변경될 것에 염두에 두고 장외발매소 유치를 신청한 것은 이미 암암리에 용도변경을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바, 우리 서구민과 서구의회에서는 금호그룹과 서구청 및 광주광역시와의 승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행위 및 그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감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3) 서구민은 경마장 장외발매소의 광주 설치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과천 경마장에서 실시되는 경기를 마권을 사서 밀폐된 공간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관람하는 것이 과연 건전한 스포츠일 것인가.

일확천금을 노린 돈 놓고 돈 먹기같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개인은 물론 가정의 파탄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경마장 장외발매소가 광주 경제활성화에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묻고자 한다.

광주광역시는 세수확보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과연 장외발매소 설치가 광주시의 재정에 유익하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은 얼마나 되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했는지?

우리 서구민은 지금까지 설치된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등 20여 개소의 장외발매소 설치 지역에 있어서의 사회적·경제적 기타 여러 측면에서의 영향을 연구·분석하여 광주시에 설치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합당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

4) 광주광역시는 시민과 함께 공개적으로 경마장 장외발매소 광주 유치에 대해 검토 및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1998년 12월 29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